

## 애니메이션 코코의 작품을 평론한다

### Review of the work of Coco

하윤정  
상명대학교

Ha youn-joung  
Sangmyung Univ

#### I. 작품 이미지



#### II. 작품 설명

##### 1. 코코 (Coco)

《코코》(Coco)는 뮤지션을 꿈꾸는 12살 소년 미구엘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배경으로 한 로드 무비 형식의 작품이다. 또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골드 글로브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등을 수상하였다.

고조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자, 고조할머니는 가문에서 음악을 금지해버린다. 뮤지션이 되고 싶은 미구엘은 크루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헥토르와 길을 떠난다. 경연을 위해 기타를 빌리려고 마지막 죽음을 앞 둔 치치차롱을 만난다. 크루즈의 간악한 본래 모습을 본 미구엘은 헥토르가 진짜 고조할아버지임을 알게 되지만 크루즈의 계략에 의해 헥토르의 사진을 놓쳐버린다. 이승으로 돌아온 미구엘은 치치차롱으로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할머니 코코에게 'Remember

me'를 부르자 헥토르를 기억해낸다.

1년 뒤 '죽은 자의 날', 크루즈의 사기 행각은 이승에서도 밝혀지고, 헥토르가 멕시코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다. 미구엘과 가족들 그리고, 조상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III. 작품 평론

《코코》(Coco)의 주인공 미구엘은 신발 만드는 가업에는 관심이 없고,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의 영화를 보며 뮤지션 꿈을 키우는 캐릭터다.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의 모든 대사를 다 외웠고, 기타를 독학으로 배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다. 헥토르는 '죽은 자의 날'에 이승으로 가 딸을 보는 것이 목표다. 마마 이멜다는 멕시코의 모계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족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적극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캐릭터다. 음악은 저주라고 말하는 가족과 뮤지션이 되고 싶은 미구엘의 갈등은 이미 예상 되어 진다.

사건적 배경은 매년 10월 마지막 날에 열리는 멕시코 풍습 '죽은 자의 날'에 시작된다. 멕시코의 치첸이사를 배경으로 한 출입국 수속대, '세노테스'에서 영감을 받은 동굴,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리골드(금잔화) 다리, 멕시코 전통 품종인 솔로, 민속공예 예술인 알레브리히 등 멕시코의 명소와 문화는 '죽은 자의 세계'를 매력적이며 신비롭게 한다. 리 언크리치 감독은 《코코》의 핵심요소로 음악을 선택해 미구엘과 헥토르에게 유대감과 교감을 나누게 하며, 유쾌함과 흥겨움을 유발한다. '죽음'이라는 것이 엄숙하거나 슬픈 것이라기 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연회의 성격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두 세계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팀 버튼의 《유령신부》(Corpse Bride, 2005)가 있다. 두 작품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가족들이 나온다. 또한 공감과 소통으로 해결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극의 분위기는 다르다. 유령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상적으로 등장하지만, 좀비나 마녀처럼 무섭지만 미구엘이 만난 조상들은 친근하다.

중심 플롯은 미구엘이 진정한 대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며 뮤지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가족이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며, 각자 원하는 것도 다르다. 사랑하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가족이기에 제 편이 되어 주며 응원해 줄 수 없나는 미구엘의 외침에 마마 이멜다는 조금씩 소통한다. 타워 아래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서로를 삼춘, 이모로 부르며 관계를 형성하지만 화려한 타워에 사는 존재와 극적 대조를 이룬다. 《코코》에서 이승과 저승은 현실과 다를 바 없어 처연하다.

이승으로 돌아온 미구엘이 증조할머니 코코와 함께 '기억해 줘'를 부르는 장면은 감정을 최대로 끌어올려 준다. 현실에서 억압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모조리 뒤집히며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유대와 연대 의식으로 이어진다. 가족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진부하지만 변하지 않는 기본적 진리를 알려준다. 또한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에 모여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마지막 장면은 그 의미가 확장되며, 환상적 분위기는 감정을 더 극대화 시킨다.

《코코》는 이렇듯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우리에게 가족과 뿌리를 기억하는 건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위로한다.